

광주 아파트 분양가 1년새 20% 올랐다

3.3㎡당 765만9000원... 지난해보다 133만원 상승
상승률 서울이 두번째... 대규모단지 잇단 분양 영향

“같은 34평 아파트 분양가가 작년엔 2억원, 올해는 2억3500만원?”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난 1년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를 가속하며 전체 주택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15일 대한주택보증이 내놓은 ‘6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765만9000원으로, 전년(752만3000원)보다 13만6000원(1.8%)이 상승했

다. 전용면적 84㎡(옛 34평) 크기의 아파트로 따지면 분양가격이 1개월 사이 산술적으로 343만원 가량이 오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632만원)과 비교하면 3.3㎡당 무려 133만8000원(21.2%)이 상승했다. 84㎡ 주택형으로 비교할 경우 지난해 6월 분양가가 2억원이었다면 올 6월엔 2억3412만원으로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서울(265만원, 16.3%)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다.
광주의 분양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732만6000원을 기

록하며 지난해 12월보다 122만8000원(20.1%)이나 뛰어 올랐다. 2012년을 100으로 가정한 분양가격지수도 2013년 12월 89.5에서 올해 1월 107.6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후 2월엔 3.3㎡당 28만5000원(732만6000원→761만1000원)이 올랐고, 3월 26만5000원(761만1000원→734만6000원)이 떨어진 뒤 4월 동결, 5월 17만7000원(734만6000원→752만3000원)이 다시 오르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올해 들어 33만3000원이나 상승했다.
분양가격지수 또한 1월 107.6에서 112.5로 4.9%포인트나 올랐다.
이처럼 올해 들어 분양가격이 급상승한 데는 꾸준한 분양실적이 바탕이 됐다. 광주는 1월 96가구를 비롯, 2월 260가구, 3월 2222가구, 5월 1071가구, 6월 526가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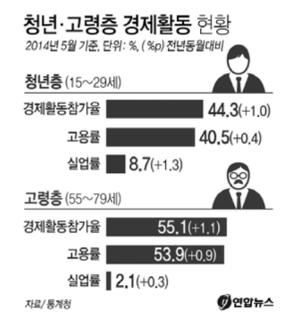
공급됐다.
특별한 것은 분양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광주의 분양가격지수가 6월 기준 6대 광역시 중 대구(116.9)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반면, 3.3㎡당 분양가는 여전히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올해 들어 광주에 대규모 단지가 잇따라 분양되면서 전체적인 분양가를 끌어올린데다,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는 도심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60만9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2.72 (+18.84)	▼ 금리 2.59% (-0.01)
▼ 코스닥 559.15 (-2.35)	▲ 환율 1027.40원(+9.20)

청년층 졸업 후 평균 1년간 ‘백수생활’

통계청 조사 결과
19% “그냥 쉰다”

청년층(15~29세)이 학교를 중퇴·졸업한 후 첫 일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79세의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통계청이 공개한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청년층 인구는 950만 7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44.3%, 고용률은 40.5%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절 준비자는 66만1000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대졸자(3년제 이하 포함)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4년1개월, 휴학경험 비율은 42.7%였다. 4년제 대졸자의 평균 졸업 소요기간은 5년2개월(남 6년4개월, 여 4년4개월), 휴학자의 평균 휴학기간은 2년4개월(남 2년8개월, 여 1년4개월)이었다.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2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월 늘었다. 2006년 5월 이후 8년 만에 최장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1~2년이 소요된 졸업·중퇴생은 11.1%, 2~3년은 5.8%,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9.3%였다.
미취업자 32.0%는 직업교육이나 취업시절 준비, 15.4%는 구직활동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육아·가사나 그냥 쉬는 사람도 각각 19.3%, 18.5%를 차지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임금근로자는 62.3%로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평균 1년 3개월이었다. 그만둔 사유는 보수가 나



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7.0%로 가장 많았다.
고령층(55~79세) 인구는 1137만 80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 대한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4개월(남 19년, 여자는 11년7개월)로 1년전보다 6개월 줄었다.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였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 연령은 평균 49세로 남자 52세, 여자 48세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519만8000명)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 미만인 39.3%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은 21.2%였고 150만원 이상수령자는 7.6%였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0%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 싶어서’가 54.0%로 가장 많았다. 일하는 즐거움도 38.8%를 차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아차 2015년형 K7 최대 244만원 인하

기아자동차가 15일 상품성을 개선하고도 최대 244만원이나 가격을 인하한 2015년형 K7을 출시했다. 준대형 차량 판매부진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새 모델은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새로 탑재하고, 리어 콤파트네이션 램프의 점등 이미지를 좀 더 날렵하게 다듬었다. 트렁크 내부 하단에도 크롬 장식을 붙였고, 17인치 알루미늄에 더해 19인치 크롬 스피커링 알루미늄을 추가했다.

차량 내부도 우드그레인 인테리어를 새로 적용하고, 글로브박스 버튼과 도어 스피커그릴 등을 크롬으로 꾸몄다. 레드 브라운 인테리어 옵션도 추가했다. 편의사양으로는 앞좌석 통풍시트,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자외선 차단 글라스(윈드 쉴드), 에어로 타입 와이퍼 등을 기본 적용했다. 기존 6개 등급(트림)을 엔진별 단일 트림으로 단순화했고, 가격은 62만~244만원 내렸다. 대신 기본 적용했던 내비게이션은 옵션으로 뒀다.

K7은 올해 상반기 1만1126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605대)보다 18.2% 줄어드는 등 기아차의 승용차 모델 가운데 가장 큰 판매 감소폭을 기록했다.

‘K7 2015’의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2.4 프레스티지 모델 2960만원, 3.0 프레스티지 모델은 3300만원, 3.3 노블레스 모델 3950만원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기아차는 15일 서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K7 2015’의 사진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 제공>

‘복 마케팅’... ㅂ조리·소포장 인기

초복(18일)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체가 본격적인 ‘복 마케팅’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 복맛이 보양식은 반(半) 조리과 소포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15일 이마트에 따르면 광주 5개점의 최근 15일(6월28~7월12일)간 소포장 및 간편식 삼계탕 판매율을 조사해 본 결과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 반마리 삼계탕’, ‘아워홈 고려삼계탕 닭반마리’ 등이 고객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롯데마트 역시 초복을 앞두고 전국 주요 점포에서 활 전복과 백숙용 닭을 판매하고 있는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포장 상품들이 잘나가고 있다. 활 전복(3마리)은 9900원에, 백숙용 큰 닭(국내산 1.1kg 이상)을 시세보다 25%가량 저렴한 5900원에 선보이고 있다.
즉석조리용 보양식과 소포장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더 인기가. 삼계탕과 장어 세트 등을 내놓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오픈마켓 육서는 오는 20일까지

이마트 등 판매율 급증 온라인몰 특가전 열풍

‘집으로 찾아가는 영계백숙’ 행사를 열고 삼계탕용 영계 2만 수와 함께 장어와 사골, 오리 등 대표 보양음식을 최대 60% 할인 판매한다.
온라인 종합몰 CJ몰에서는 무더위로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 줄 복날 대표 보양식과 건강식품을 준비했다. 매일 오전 10시마다 이벤트 ‘삼복더위 불렀거라’를 통해 삼계탕과 전복, 제철과일 등을 CJ몰 단독특가로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증권 호남권 법인포럼’ 내일 열린다

상무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경제전망 공유와 경영인간 지역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삼성증권 호남권 법인포럼이 17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신동석 센터장과 채권상품팀 정병식 팀장이 ‘하반기 주식과 채권시장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시장의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김태현 삼성증권 호남사업부장은 “경영인들이 관심 있어할 주제를 선정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간 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9월에는 VIP고객을 대상으로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62) 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일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 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 들을때 대화 · 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 보청기 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음성각**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주스)

즉석요리
알리지 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랍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